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유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돌려보낸 바사 왕 고레스의 협조 아래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 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도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고지기에게 명하여 예전에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총독인 세스바살의 인도 하에 남녀 종을 포함하여 모두 5만 여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어떤 족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것을 위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예전 성전이 있던 터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드디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이제 예전 성전이 있던 자리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가 놓여진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전 솔로몬이 건축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초를 놓은 성전은 예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성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기쁨 속에서 멀리서도 들

릴만한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던 성전 건축은 뜻밖의 대적자들을 만나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였고 아닥사스다 때에도 왕에게 편지를 올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고 성전 건축은 바사 왕 다리오 제이 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성전 건축은 계속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 형통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 제육 년 아달 월 삼 일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끝마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에 속죄제를 드리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레 동안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매우 유사한 점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며 그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믿게 된 후라도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에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탄 마귀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머리에 뿔을 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이용하여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곳을 공격하고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곳을 공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탄 마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사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